

지도자 및 교원_수기-11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사례명

소통 Wake up! 마음 Wake up!

응모자

학교

○○고등학교

직위

교사

성명

○○○

학업중단 위기원인

학교 교육의 중요성 하락, 고립 등 정서적 불안 증가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일자(기간)

21'.03 ~ 현재 (3년 7개월)

1. 기획 배경

우리 학교는 도시 내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어 저소득, 편부모, 조손가정, 다문화/외국인 부모 등으로 학생들의 개인적 환경이 다양하고 가정 내 지지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이유인지 무기력하고 회복탄력성이 낮아 어려움이 있으면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며 등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지며 지각, 결석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또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는 이유로 학업적 스트레스도 있지만 학교는 재미없다, 학교에는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학생 주변에 학업중단자가 존재할수록 학업중단을 쉽게 결정하였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할 이유를 우선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재미있을 일을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친구들과 및 선생님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무기력을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법을 알려주려 했다.

2. 프로그램 운영

가. 점심시간 공예 교실

우리 학교는 매년 학업중단숙려제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기에 대안교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수업시간을 주기적으로 빠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학교시스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학교를 결석을 자주 하면서도 또래관계에서 튀거나 배제되는 것을 걱정하여 숙려제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 그래서 점심을 안 먹는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위클래스에 와서 자유롭게 공예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학생을 특정해서 정해두지 않고 하고 싶은 학생들이 공방에 들리듯 각자의 속도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자이언트안 뜨개, 메크라메, 아로마 캔들 만들기, 백드롭 페인팅, 압화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준비해두고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교사 알려주기도 하고 동영상도 보며 혼자 따라해보기도 했다. 학교를 와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 자신은 하는 게 없다며 힘들었던 학생이 하나씩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즐거워했고 친구와 함께, 때로는 혼자 들러 오늘은 무엇을 할까하며 시간을 보내며 학업중단위기를 넘겼다.

나. 조기 개입하는 학업중단숙려제

학생이 학업중단 희망을 하고 난 뒤 뿐 아니라 초기 예방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부적응 등 위기 징후가 있을 때 바로바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우리학교의 경우 21년 6명, 22년 17명, 23년 16명, 24년 12명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하였다.

보통 학업중단을 원한다고 결심을 하고 왔을 때는 이미 마음을 먹었기에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 학업중단자가 많아서, 회피목적으로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결심을 하기는 경우에는 검정고시도 통과가 어려울 학생이 많았다. 또 미인정 결석이 많거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며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재의 고통 수준을 낮춰주고 학업중단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대부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프로그램으로는 개인상담, 검정고시 및 대입정보 제공, 감정일기/감사일기를 통해 긍정적 정서 향상, 보드게임, 다양한 공예 수업, 사제동행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였다. 숙려제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는 위클래스에서 집단으로 운영하였는데 비슷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학교 명상 교실-5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았다. 예방적 조치로서 마음챙김 명상교육을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시간의 한계로 심리학 동아리 학생들만 모아 진행하였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 익히기, 부정적 감정 다루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 스스로 내면의 문제를 지니고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명상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평소 길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감정조절 문제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들도 발견되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명상하는 법을 익힘으로써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과 자신의 감정조절 어려움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 학교장과 함께하는 사제동행 힐링캠프-7월, 인근 청소년 수련시설 협조

시 간	일 과 진 행	활 동 내 용	비 고
09:00~09:30	집합(학교) 및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원 및 팀별 준비물 점검 안전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단체차량 이용
09:30~10:00	행사 진행 안내 및 사진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인사 행사 물품 배부 행사 진행 안내 및 단체 사진 촬영 	일정 안내
10:00~12:00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로 하는 자존감 키우기 	외부강사
12:00~13:30	삼겹살 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친구들과 협동하며 준비하기 식사하며 교류하기 	
13:30~14:30	또래활성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총싸움 보드게임 등 	
14:30~15:00	학교 이동 및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가 시 안전교육 및 해산 	

학업중단위기학생 및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을 우선 선발하되 각자의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도록 하여 학생 30명, 교사 6명이 함께 하였다. 지역 인근의 수련시설의 협조를 구해 자존감 향

상 프로그램과 사제동행 삼겹살 구이, 물총 싸움을 계획하였다.

사제동행으로 학교장과 여러 선생님들이 위기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함께 어울리는 문화 조성하고자 하였다.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를 초빙하되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강의식이 아닌 참여식으로 진행하며 자신감을 목소리에 담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또 조별과 개인 점수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 모두 선물 받을수록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학생이 현재 학업중단위기를 극복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삼겹살 파티는 학교에서 용품을 모두 준비했으며 조별로 나눠 진행하였다. 선생님도 각 팀에 나눠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다. 물총 싸움할 때는 우의와 수건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자 원래 안 할거라고 하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다음에도 또하면 참석하고 싶다고 하였다.

마. 멘토와 함께하는 Talk 콘서트-8월 (11월 추가 예정)

올해는 유독 진로 상담 요청이 많았다. 미래 직업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진학은 어느 학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막막함을 호소했다.

청소년을 주로 상담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누구나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과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로 멘토와 함께 토크콘서트(부제: 미래가 불안한 10대들의, 10대에 의한, 10를 위한)를 기획하게 되었다. 교내 희망자와 학업중단위기학생 30여명을 모아 실시하였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매일 노는 학생 모두 각자의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조언 들으니 불안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며 나아가야하는 방향에 대해 알게되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3시간을 준비하였으나 질문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11월에 한 번 더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다.

바. 또래 도슨트와 함께하는 예술 캠프(사제동행)-9월

시 간	일 과 진 행	활 동 내 용	비 고
~13:00	집합(학교)	• 인원 및 팀별 준비물 점검	
13:00~13:40	미술관 이동	• 안전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단체차량 이용
13:40~15:40	미술관 관람	• 학교장 인사 • 행사 물품 배부 • 행사 진행 안내 및 단체 사진 촬영	일정 안내
15:40~16:00	미술관 인근 산책	• 가을의 정취 느끼기	
16:00~16:40	학교 이동	• 귀가 시 안전교육	
16:40~	해산		

학생들에게 예술품을 감상하며 자기 내면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단순히 미술관 관람을 가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니 학생들 수준의 도슨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미술 동아리 학생 중 도슨트를 뽑았다.(전체학생 30명, 도슨트9명, 교사6명) 미술교사가 사전답사한 것과 미술관 전시도록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도슨트 사전 교육을 하였다. 도슨트를 맡게 된 학생들은 작품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고 오니 작품이 새로이 보인다고 했으며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옆에서 안내를 해주니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다. 선생님들도 학생들 조에 함께하며 도슨트 활동을 격려하며 함께 작품을 감상하였다. 미술관 관람을 통해 새로운 여가 방법과

인문학적 소양을 익히며 미술을 매개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학교 부적응으로 환경 전학을 온 뒤 매일 등교를 잘 하지 못하던 학생도 친구와 함께 외부체험을 가기 위해 등교하였으며 교실과 달리 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 기타 사항

- 학업중단숙려제 참가는 쉽게 하되, 자퇴 절차를 어렵게 하여 충분히 숙려할 시간을 가지도록 함.
- 전체적인 자퇴 학생을 줄여 주변 학생들의 동요 줄이기
- 담임,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학생들과 관심갖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 조성

3. 성과 및 보완할 점

기존에는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발생한 후 수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사용하다보니 학업중단을 막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어려움을 미리 캐치하는 것과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했다. 2년 전 사제동행 캠프를 준비할 때는 지나가는 행사에 불과한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며 그래도 효과가 조금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사소함들이 쌓여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이 교육의 힘인 것 같다. 그래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보았다.

일반학생들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기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서로 관심갖고 소통하는 문화 조성과 회복탄력성 강화로 정서적 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건강한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등교를 하도록 연락하며 우울감 느낄 때 도움을 주는 등 힘이 되어주었다. 그 덕분에 21, 22년 8명의 자퇴에서 올해는 3명(유학 2명)만이 학업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1학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했던 3명의 학생이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하며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다. 물론 혼자서 아닌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해주었으며 두드림, 사제 멘토링, 소수인원과 하는 방과후 수업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병행되었기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른 것보다도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학업중단예방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는 것과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정서 강화를 위한 교육들이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담교사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기에 학교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협조와 필요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